

수사학적 지식의 교육 내용 연구

— 현대시 텍스트의 설의적 표현을 중심으로 —

김미혜*

〈차 례〉

- I. 문제 제기
- II. 왜 설의적 표현인가?
- III. 설의적 표현의 유형과 표현 효과
- IV. 맺음말

I. 문제 제기 — 국어교육과 수사학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정보는 양적인 측면에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속도로 불어나고 있고, 정보의 채널 또한 진화를 거듭하면서 의사소통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어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의사소통 능력이 구체적인 쓰임의 맥락 속에서 살아 있는 언어를 염두에 둔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의 국어교육은 탈 맥락적인 지식보다는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와 교수·학습의 실제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 물론 언어적 의사소통의 맥락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효

* 서원대학교 강사, antikka@dreamwiz.com

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발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사소통이 정서적인 감화이든 실질적인 행동의 수행이든 수신자에게서 모종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이라면, 의도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언어를 조직해야 하는지를 교육 내용으로 체계화하는 것 또한 국어교육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수사학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학은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모든 복잡한 일, 즉 화자(작가)를 그 상대자들과 연결시키는 행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¹⁾ 그런 점에서 수사학을 내용과는 구별되는 표현의 기교나 기법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단순히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내면에서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이나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수사학은 그러한 표현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장치이다. 수사학의 기원이 ‘웅변술’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수사학이 ‘설득’이나 ‘감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충족적인 언어가 아니라 늘 독자/청자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의 언어를 정점으로 일상어를 아우르면서 수사학은 의도한 표현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비법의 개요를 제시한다.²⁾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이 학습자들의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필자/화자가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끌어가기 위해 독자/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의 집적체로서 수사학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³⁾ 그리고 그러한 기술은 가치 있는 내용이 뒷받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8),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442면.

2) 김현 편(1985),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19~20면. 폴랑 바르트는 「옛날의 수사학」에서 수사학이 1) '기술', 즉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기예 art>, 2) 교육, 3) 학문 혹은 하나의 원형 학문, 4) 하나의 규범, 5) 사회적 실천, 6) 유희적 실천 등 여러 실천들을 포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수사학이 하나의 규범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실제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비법들의 개요인 동시에 하나의 법전, 곧 규범적 시행 규칙제'임을 뜻한다. 이는 수사학의 연구 성과가 표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종의 교본(manual)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침되었을 때 비로소 의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요컨대 수사학은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주체들에게 유용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국어교육의 내용론을 채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수사법의 종류와 정의, 예를 아는 차원에 한정해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의도와 효과의 차원에서 기존의 수사법 체계를 새롭게 논의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II. 왜 설의적 표현인가? — 연구 대상 및 연구의 관점

앞 장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수사학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의 곳곳에는 비유법이 스며들어 있으며 수사학을 떠나서는 어떠한 인지 활동도 할 수 없다.⁴⁾ 또한 현직 대통령에게 붙은 ‘수사적 인간(homo rhetoricus)’이라는 별명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치인들의 언어에서 수사적 장치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기 드라마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어록을 비롯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말 맛’을 즐기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학을 문학 작품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주변적인 지식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수사학의 기본 지식들을 실제 언어 생활에 필요한 이해와 표현의 전략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적절할 것이다.

3) 본고에서 ‘화자’는 ‘시적 화자’나 ‘내포 작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구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발신자를 일컫는 것이며, ‘청자’도 시적 상황 속에서의 ‘청자’나 ‘내포 독자’가 아니라 의사소통상의 수신자를 지시한다.

4) 레이코프와 존슨은 은유가 우리의 사고와 경험 속에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지를 체험주의의 관점에서 밝혀 보인 바 있다.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평사.

그런데 수사학 논의의 정점에 문학 텍스트가 놓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문학어가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어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살핌으로써 수사학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사적 표현의 의도와 효과가 응축되고 집약되어 드러나는 현대시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수사법의 한 종류이면서 문학적 수사로서는 주변부에 놓인다고 볼 수 있는 설의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아래에서는 (1) 왜 기존의 설의법 대신 설의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2) 시의 장르적 속성을 감안할 때 설의적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현대시 텍스트에 나타난 설의적 표현으로 한정할 이유와 연구의 관점이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1. '설의적 표현'이라는 용어의 설정

일반적으로 의문(question)은 미지의 사실에 대한 정보(information)의 결여를 나타내거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요구하는 언어 행위이다. 문장 종결법의 하나인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으로,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나뉜다. '예/아니오'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나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는 달리 수사 의문문(rhetorical question)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니어서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낸다. 즉, 수사의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이나 설명 의문문과 문장 형식은 유사하지만 표현 의도와 효과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의문문이다.

박영순은 의문문의 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

- a. 화자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하여 아직 모르거나, 알아도 미진한 상태에서 발화하여야 한다.

5) 박영순(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박이정, 82면.

- b. 이러한 미지(未知), 미진성(未盡性)을 청자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 c. 이러한 의도를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 d. 청자의 언어적 응답을 요구하여야 한다.
- e. 동일한 내용을 타서법(他敍法) 또는 타문형(他文型)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 f. 경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문의 성립 조건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의 정도에 따라 의문성의 정도를 계산해 의문문의 유형을 질문 의문문, 요청 의문문, 수사 의문문의 세 가지로 나누고 질문 의문문을 순수 의문문, 요청 의문문을 준의문문, 수사 의문문을 의사(擬似) 의문문이라 명명한다. 청자를 통한 해결 의도성이 없고, 타문형으로 대체 가능하며 청자의 언어적 응답을 요구하지 않고 경어법 적용도 엄격하지 않은 의문성이 가장 낮은 유형의 의문문이 수사 의문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문으로 표현된 것을 평서문으로 기술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같을 수 있겠지만 상황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의문문은 독자/청자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문의 형식을 통해 독자/청자를 상황적 의미의 맥락 속으로 끌어들이고 모종의 반응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분류법은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의문문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Barnwell의 분류법은 수사 의문문이 실제적인 답을 구하지 않더라도 평서문과 다른 독자/청자의 반응을 의도하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수사 의문문(Rhetorical Question)과 일반 의문문(Real Question)을 구별하고 'Rhetorical'을 'Real'의 대립항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Barnwell은 수사 의문문에는 다른 문형으로 치환했을 때 사라져 버리는 모종의 의미가 덧입혀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누군가가 답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일반 의문문과는 달리 수사 의문문의 경우에는 답변이 뒤따르지 않거나 답변이 뒤따르더라도 실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

수사법의 하나로서 설의법은 수사적 의문이라고도 하는데, 독자/청자의 직접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응답에 필요한 기다림/머뭇거림의 시간을 빚어냄으로써 독자/청자로 하여금 필자/화자에게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경우에 따라서 설의법이라는 용어는 의문법, 문답법, 자문자답법과 변별적으로 쓰이기도 한다.⁷⁾ 그러나 개념상으로 설의법과 문답법, 자문자답법은 모두 의문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의문법과 설의법을 구분하고 설의법을 반문법에 한정하여 설명함으로써 설의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혼돈을 빚고 지식의 단편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설의법과 문답법, 자문자답법, 의문법을 나누어 설명하는 이러한 용어법은 중·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학적 지식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의적 표현이라는 용어로 시 텍스트에 쓰인 의문문의 표현 의도와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미지(未知)를 독자/청자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의문문의 성립 조건 중 하나라고 할 때, 시 텍스트에 등장하는 의문문들 중 이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없다. 시 텍스트의 의문문들은 이미 그에 대한 응답을 내포하고 있거나 응답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고 있어서 그 목적이 독자/청자를 텍스트의 맥락 속으로 불러들이는 데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시 텍스트에 쓰인 의문문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설의법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적인 효과를 의도한 것들이라고 할 수

6) Katharine Barnwell(1999), *Bible Translation*, Jos. Nigeria: Nigeria Bible Translation Trust, p.169. 여기서는 박노철(2003), 「수사적 표현의 번역 방법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 42면에서 재인용.

7) 김옥동은 물음을 던져 말하는 수사법을 의문법으로, 의문문의 형식을 통하여 결론을 유도하는 수사법을 설의법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사법 중 스스로 물음을 던진 뒤 스스로 답하는 것을 자문자답법, 화자나 저자가 청자나 독자로 삼고 있는 가상의 인물이 답을 하는 방식, 즉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답법으로 분류한다.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99~315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백하게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쓰인 것이 아니며 수사적인 표현 효과를 빚어내는 의문문들을 설의적 표현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⁸⁾

설의적 표현은 의문법과 설의법, 문답법, 자문자답법을 아우르는 것이지만 논의의 초점은 앞의 두 수사법에 맞추어질 것이다. 물론 문답법이나 자문자답법도 의문문을 이용해 독자/청자의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설의적 표현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응답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 것에 비해 독자/청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맥락 속에서 필자/화자의 의문을 공유하고 그에 함께 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의 중심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2. 시적 수사에 있어서 '설의적 표현'의 의미

시는 자기 표현적인 요소가 강한 장르로, 서사 장르나 극 장르가 행위를 모방하는 것과는 달리 서정시는 주체가 자기의 내면 안에서 외적인 세계와 대응하며 주관적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설명된다.⁹⁾ 하지만 시가 본질적으로 주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며 "전달이란 시의 본질 속에 있는 하나의 기능"¹⁰⁾이다. 그리고 설의적 표현은 "하나의 시는 독백일 수 있지만 그것은 큰소리로 말하여지는 독백"¹¹⁾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의문문은 화자 자신이 되었던 청자가 되었던 그것에 답하는 누군가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인데, 시 텍스트의 필자/화자는 그 누군가에게 의문을 던짐으로써 그를 자신의 독백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와 함께 의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한다.

8) 수사 의문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수사의 의문문이 요청 의문문을 포함해서 내용상으로 의문문이 아닌 모든 형식상의 의문문을 가리키기도 하고 반문법만을 한정해서 의미하기도 하는 등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9) 김현자(2006),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서정'의 본질과 의미」, 한국시학회 제17차 전국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현대시에서 '서정'의 존재방식과 변모양상』, 한국시학회, 7면.

10) M. 함부르거 지음, 이승욱 옮김(1993), 『현대시의 변증법』, 지식산업사, 32면.

11) M. 함부르거 지음, 이승욱 옮김(1993), 위의 책, 33면.

시 텍스트의 설의적 표현은 재귀 의문문(self-addressed question)처럼 보일 때도 청자를 향하고 있고 청자 의문문(hearer-addressed question)처럼 보일 때도 필자/화자 자신의 대답을 내포하고 있다. 이상화가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대답은 필자/화자¹²⁾와 독자/청자 누구에게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면서 또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운 들녘의 풍경과 함께 놓임으로써 기필코 되찾아야 할 ‘봄’에 대한 열망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텍스트 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청자는 필자/화자가 던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텍스트를 읽게 된다. 시에서 설의적 표현은 필자/화자가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문 제기’만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문문의 형식 때문에 독자/청자에 대한 ‘질문’의 의미 기능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다음 시는 설의적 표현의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분.

이 시는 “지은이가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에 유의하며 시를 감상해 보자.”라는 학습 목표에 대한 제재글로 채택되었으며, 평서문이 아닌 설의법을 사용했을 때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묻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시에는 의문문의 형식

12) 시적 화자와 필자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필자/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빚을 수 있다. 하지만 표현 의도를 가지고 수사적 장치를 운용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아니라 표현의 주체인 시인 자신이기 때문에 ‘필자/화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을 취하고 있는 세 개의 문장이 등장한다.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인가.’가 그것인데, 셋 중 어느 하나도 ‘얼마나’나 ‘어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필자/화자는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독자/청자에게 말을 걸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눈물이 있는 사랑이야말로 가슴 벅찬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결론에 독자/청자 스스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들이 있고,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독자/청자와 함께 느끼고자 하는 의도가 설의법이라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실현되어 있는 것이다.¹³⁾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운인가’는 감탄의 의미를 지니지만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는 ‘없다’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설의법’이 체계화하지 못한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획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의 관심사는 “화자를 그가 상대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복잡하게 얽혀진 관계”이며, 수사학은 “작가와 그의 독자들의 관계를 확립, 자기 작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끌어내고 유도하는 방편이 되는 모든 기교”를 포괄한다.¹⁴⁾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필자/화자의 정서적 감흥 혹은 지적 깨달음에 대한 독자/청자의 응답을 빚어내는 수사적 기교이며, 시에 쓰인 의문문들은 미정보 상태에서 정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차원의 의문문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수사적 효과를 의도하고 또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설의적 표현이라는 상위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설의적 표현이라는 상위 범주를 설정

13) 실제 교수·학습 장면에서 이 텍스트를 가르칠 때 ‘설의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법을 따랐을 뿐, 설의법을 설의적 표현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는 논지에는 변함이 없다.

14) 김혜영(2000), 「문학적 체형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10면.

함으로써 시에 쓰인 의문문들을 묻기만 하느냐 묻고 답하느냐 하는 식의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수사적 효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새롭게 범주화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학이 국어교육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작업을 통해서일 것이다.

III. 설의적 표현의 유형과 표현 효과

이 장에서는 시에 쓰이는 설의적 표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표현 효과를 밝히도록 할 것이다. Hodge는 리얼리티가 기호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매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양태(moda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¹⁵⁾ 그에 따르면 양태란 메시지를 드러내는 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설의적 표현에서는 의문성의 정도와 관련된다. 즉 양태값이 높다는 것은 메시지가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이며 의문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양태값이 낮다는 것은 메시지가 모호한 경우이며 설의적 표현에서 이는 정보가 부족하여 의문성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설의적 표현에서는 응답이라는 것이 대개 의문문에 이미 깔려 있는 함축적 의미에 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양태값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설의적 표현은 그것이 비록 자문(自問)의 형식을 띠고 있더라도 독자/청자가 물음에 대해 답하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타자 지향적이다. 하지만 그 타자 지향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설의적 표현이 '감탄'의 의미를 지닐 때보다 '명령'이라는 발화 효과를 수반할 때 타자 지향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타자 지향성과 양태값의 정도를 기준으로 설의적 표현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5) 자세한 내용은 Robert Hodge(1990), *Literature as Discourse: Textual Strategies in English and History*, Polity Press의 6장을 참조할 것.

		양태값	
		높음	낮음
타자 지향성 정도	적극적	[1]	[4]
	소극적	[2]	[3]

여기서 양태값은 박영순이 제시한 의문문의 검증 기준 중 화자의 미지, 미진성과 관련이 있으며 타자 지향성 정도는 청자를 통한 해결 의도성, 청자의 언어적 응답 요구성과 유사하다.¹⁶⁾ 그는 모든 수사 의문문은 청자를 통한 해결 의도성을 지니지 않으며 청자의 언어적 응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 의문문과 구별된다고 했다. 그러나 설의적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언어적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독자/청자의 심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설의적 표현은 필연적으로 타자 지향성—청자를 통한 해결 의도성이나 언어적 응답 요구성을 포괄하는—을 지니며 타자 지향성의 정도가 설의적 표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의 표에서 제시한 설의적 표현의 네 가지 유형 중 일반적인 의미의 의문문에 가장 가까운 것은 [4]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적기 때문에 의문성의 정도가 가장 강하고 독자/청자의 응답을 가장 강하게 요청하는 유형이다. [1]의 유형은 의문성의 정도는 낮지만 응답을 타자에게서 구하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표현 효과의 차원에서 보면 요청이나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는 역시 의문성의 정도가 낮지만 응답을 타자에게서 구하는 정도가 약한 경우로 필자/화자의 느낌이나 깨달음을 표현하면서 독자/화자의 동의를 구하는 유형이다. [3]의 경우는 의문성의 정도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것에 대한 타자의 대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의문에 독자/화자가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16) 박영순(2001), 앞의 책, 89면.

1. 행위의 변화를 요청하기

:타자 지향성이 강하고 양태값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기능은 질문, 요청, 확인, 의심, 추측, 반복, 감탄, 주저, 한탄, 강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 유형의 설의적 표현은 설의적 표현의 첫 번째 유형은 “창문 좀 닫지 않겠니?”나 “창문 좀 닫아 줄래?”와 같은 요청 의문문처럼 독자/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설의적 표현은 요청 의문문에 비해 청자를 통한 해결 의도성이 약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필자/화자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그대는 겨울을/ 겨울답게 살아 보았는가/ 그대는 봄다운/ 봄을 맞이하여
보았는가/ 겨울은 어떻게 피를 흘리고/ 동토를 녹이던가/ 봄은 어떻게 폐허에
서/ 꽃을 키우던가 겨울과/ 봄의 중턱에서/ 보리는 무엇을 위해 이마를 맞대
고/ 눈 속에서 속삭이던가/ 보리는 왜 밟이줘야 더/ 팔팔하게 솟아나던가/ 잡
초는 어떻게 뿌리를 박고/ 박토에서 群居하던가/ 짙레꽃은 어떻게 바위를 뚫
고/ 가시처럼 번식하던가/ 곰팡이는 왜 암실에서 생명을 키우며/ 누룩처럼 물
래물래 번성하던가/ 죽순은 땅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던가/ 뱀과 함께 하늘을
찌르려고/ 죽창을 꺾고 있던가

- 김남주, 「젯더미」 부분.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겨울밤의/진통’을 끈질기게 견뎌낸 이만이 피우고 또한 키울 수 있는 꽃을 젯더미 위에 피우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묻는다. “그대는 타오르는 불길에/ 영혼을 던져 보았는가/ 그대는 바다의 심연에/ 육신을 던져 보았는가”, “그대는 겨울을 겨울답게 살아 보았는가/ 그대는 봄다운 봄을 맞이하여 보았는가”라는 질문은 그러한 행위가 가치 있음을,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봄에 핀 꽃이 얼마나 힘겨운 겨울을 견뎌 냈는가를 알려주기를, 것처럼 꽃을 피우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 연을 제외한 모든 연에서 “~ㄴ/는가?” 형식의 의문문이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이 시의 양태값은 높다. “아는가 그대는”, “그대는 아는가”라고 묻고 있지만 실은 알아야 할 내용을 모두 일러주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앎으로써 생기는 생각의 변화이고 행위의 추동인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심층의 의미는 독자/청자의 행위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 텍스트에서 설의적 표현은 명령법을 대신하여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설의적 표현의 궁극적인 의미는 텍스트의 심층을 다 읽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설득의 효과는 “~ 영혼을 던져보지 않겠나?”라거나 “~ 죽창을 쥐지 않겠나?”라고 묻는 것보다 은근하면서도 강렬하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김남주, 「자유」 중에서)”의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자유를 얻기 위해 “만인을 위해” “땀 흘려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젯더미」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山과 山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 같은 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박봉우, 「휴전선」 중에서)”에서도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는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부정의 답을 요구하는 수사 의문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독자/청자 스스로 고민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그러한 단정을 독자/청자 스스로 내리게 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맥락, 나아가 실천의 맥락으로 나아갈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2. 깨달음과 느낌을 공유하기

:타자 지향성이 약하고 양태값이 높은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의문문이 일종의 확인이나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양태값이 높지만 타자 지향성이 약한 경우는 필자/화자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바에 독자/청자가 동의해 주기를 바라거나 자신의 정서적 감흥에 독자/청자가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한다. 설의적 표현은 주체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진술하는 평서문에 비해 독자/청자가 응답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이미 분명히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청자가 표면적인 형식과 심층적인 의미 사이의 간격을 매우면서 필자/화자의 깨달음이나 느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1) 긍정/부정을 의문으로 대신하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이육사, 「광야」 부분.

「광야」의 첫 번째 연은 3행의 ‘들렸으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 왔다. ‘들렸으랴’를 ‘들렸겠느냐’로 보면 ‘들리지 않았다’로 해석이 가능하고 ‘들렸으리라’의 축약형으로 보면 ‘들렸을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들렸으랴’는 통사 구조상 ‘어데’와 결합되어 있으며 ‘어데’는 부정 표현과 호응을 이루는 부사라는 것은 ‘들렸으랴’를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적 의문으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¹⁷⁾ 경상도 방언에서 “어데 ~ 했을까?”라는 의문문이 “~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화자는 ‘들리지 않았다’라는 진술 대신 독자/청자에게 ‘들렸겠느냐’라고 물음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답을 유도함으로써 태초의 광야를 신비롭게 표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설의법에 대한 교육 내용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

17) 「광야」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최동호(1999), 『시 읽기의 즐거움』, 고려대학교출판부를 참조할 것.

의적 표현을 통해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도 같은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¹⁸⁾ 그러나 모든 설의적 표현이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답만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반문법은 설의적 표현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그런 점을 명확히 해야 수사학적 지식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실질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오한 진리를 강조하기

설의적 표현은 언어로 쉽게 치환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할 때 쓰이기도 한다.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는 그러한 쓰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러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
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
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처서, 옛 탑(搭)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 <중략> ... /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부분.

이 시는 “누구의 ~입니까?”라는 의문문을 통해 독자/청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실은 텍스트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의문 표현은 설의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동잎과 하늘과 향기와 사내와 저녁놀은 겹쳐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대자연이며 절대자의 구체적 현상(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화자는 자연 현상을 체험하는 순간에 얻었던 깨달음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체험의 순간에 동참하도록 하고 자신이 얻었

18) 예를 들어,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이 없을꼬냐.(유치환, 「일월」, 부분)”는 시적 화자가 가는 곳 어디에나 백일(白日)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던 깨달음을 추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시에서 설의적 표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사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입니까?”라는 질문은 인간 존재와 대자연의 섭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면서 독자/청자로 하여금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얻어 가는 과정에 동참하도록 하는 표현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연기설(緣起說)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해낸 은유법만큼이나 설의적 표현 또한 독자/청자에게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설계된 표현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에서는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다. 여기서 ‘알으십니까?’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의 강조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의 관점에서라면 ‘그 먼 나라’의 신비감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의문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감탄의 의미를 강조하기

우리말 문법에서 순수 감탄문은 한 문장의 용언의 어간이나 문장 비종결 어미 뒤에 감탄법 문장 종결 접미형태(구나, 군, 구면, 구려, 구면요, 군요)가 첨가되어 있는 문장과 감탄 보문(補文)이 내포되어 있는 문장을 가리킨다.¹⁹⁾ 그러나 감탄형 종결 어미를 군이 쓰지 않고도 감탄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다음의 예와 같은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감탄의 의미를 강조해서 전달한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이병기, 「낙화」 부분.

19) 감탄문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25~27면을 참조할 수 있다.

정보 부사에 의문형 종결 어미가 덧붙여져 감탄의 의미를 담아내는 경우를 의사 감탄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ㄴ/는가?”의 문장 형식은 의사 감탄문의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그런데 단순히 느낌표가 쓰였는가 쓰이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ㄴ/는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독자가 그 대답을 구하는 필자/화자의 행위에 동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설의적 표현은 독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3.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기

:타자 지향성이 약하고 양태값이 낮은 경우

이 유형은 질문이 필자/화자 자신을 향해 있고 독자/청자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의심의 상태에 동참하기를 요구한다. 이 유형의 설의적 표현에 의문성의 정도가 높다고, 바꿔 말해 양태값이 낮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질문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맥락을 형성하고 그것이 미지의 상태에서 지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의 앎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1) 모순을 비틀어 드러내기

설의적 표현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쓰일 때 질문을 받는 1차적인 대상은 필자/화자 자신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눈앞에 주어진 현실에 대한 냉소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파란 녹이 긴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 그 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 윤동주, 「참회록」 부분.

「참회록」에는 문장의 형식으로 볼 때 3개의 의문문이 등장한다. 그러나 셋 모두 ‘어느 왕조’나 ‘무슨 기쁨’, ‘왜 ~했던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혐오와 자괴감, 어떤 기쁨도 찾을 수 없는 삶에 대한 반성, 무기력한 삶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 옥될까.”는 부끄러운 민족사에 대한 혐오를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 의도와 관련이 있고 의문문의 형식을 취했지만 감탄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한편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와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는 일제 식민 치하의 암담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성찰을 스스로에게, 나아가 독자/청자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의문문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면서 독자/청자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며, 정말로 답을 기다리는 질문이 아니라 답을 예비하고 있는 질문이다.

「참회록」이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사이의 거리가 빚어내는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의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역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을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드러내고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앓고 암만해도 조금 쭈 옆으로 비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시인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질문은 ‘내가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존재한다. 인간의 자유가 구속받고 정의가 짓밟히는 모순된 세계상을 바라보면서도 “왕궁”을 증오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는 ‘나’에게 던지는 냉소가 첫 행과 마지막 행의 의문 형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왜?’냐고 묻고 있지만 실은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과 자유를 이행하고 싶은 내적인 욕망 사이의 갈등을 비틀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의문문은 그러한 머뭇거림과 주저함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문장 형식이다.

2) 미지(未知)를 의미화하기

다음의 시에서 설의적 표현은 정보가 없는 상태 그 자체를 나타낸다. 의문문의 기능 중 의심, 혹은 추측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유형의 설의적 표현은 알 수 없음을 통해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편성을 획득하는 전략을 취한다.

초등학교를 갓 나왔을까./ 새로 사 신은 운동화 벗어 품고/ 그 소년의 등
허리선 먼 길 떠나 온 고구마가/ 흙문은 얼굴들을 맞부비며 저회끼리 비에 젖
고 있었다.// 충청북도 보은 俗離山,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땅 漁村 말씨였을
까./ 나는 가로수 하나를 건다 되돌아섰다./ 그러나 노동자의 홍수 속에 묻혀
그 소년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 눈썹이 바람이 부는 질척질척한 겨울
날./ 宗廟 담을 끼고 돌다가 나는 보았어./ 그의 누나였을까./ 부은 한쪽 눈의
娼女가 양지쪽 기대 앉아/ 속내의 바람으로, 대 문은 긴 편지 읽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보았어./ 세종로 고층건물 공사장./ 자갈지게 등짐하던 勞動者
하나이/ 허리를 다쳐 쓰러져 있었지./ 그 소년의 아버지였을까.

- 신동엽, 「鐘路五街」 부분.

신동엽은 이 시에서 평범한 민중의 지독하리만큼 고단한 일상을 보여 준다. 낯선 소년을 비가 내리는 늦은 밤 종로 5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나’는 아직도 고향의 흙 냄새가 가시지 않은 그 소년에게서 고향을 등지고 상경한 “노동자의 홍수”를 보고 고향의 가족들을 위해 몸을 파는 “창녀”의 시연을 읽고 공사판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 쓰러진 “노동자”를 본다. 그 소년은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아니면/ 전라남도 해남땅 어촌” 출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창녀는 그 소년의 누나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허리를 다친 노동자는 그 소년의 아버지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과 창녀, 노동자는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동생일 수도 누나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있다. 필자/화자는 소년과 창녀,

노동자를 설의적으로 연결지음으로써 그들이 전형성을 획득하도록 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형성을 획득하는 것이 설의적 표현 때문만은 아니지만 “~ 말씨였을까”, “~ 누나였을까”, “~ 아버지였을까”에 이어지는 정서적인 떨림은 의문문의 형식에 의해 더 커진다.

4. 의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기

:타자 지향성이 강하고 양태값이 낮은 경우

타자 지향성이 강하고 양태값이 낮은 경우는 일상어에서라면 수사적 의도가 없는 의문문이 해당될 것이고 시에서도 명백하게 의문의 의도를 지니고 있는 의문문의 경우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의 의도가 명백할수록 수사적 장치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의문문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시 텍스트에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독자가 구하도록 요구하는 정도가 강한 한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설적으로 주어지는 유형의 설의적 표현이 양태값이 낮으면서 독자/청자가 스스로 의미의 모호성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도록 추동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설의적 표현은 항상 독자/청자를 텍스트의 의미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수사적 장치로서의 의문문은 언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독자/청자가 질문의 내·외적인 문맥 속에서 발견하도록 하는데, 시에서도 의문문의 의미는 텍스트 내적인 논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중략> ... // 나는 온
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
루를 걷는다. 아파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부분.

이 시는 첫 연에서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이 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회의와 절망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면 이 구절은 본 연구에서 밝힌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 텍스트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난 “가르마같은 논길”이며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게 웃는 “종다리”며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봄 풍경에 대한 열망은 곳곳에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과 부딪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봄을 빼앗길 수는 없다는 저항 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은 봄을 빼앗길 수 없는 이들에게 들을 빼앗긴 현재 상황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 준다. 마지막 행의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의 괴로운 확인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읽는다는 치더라도 “빼앗기겠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지 확정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이 시에서 설의적 표현은 긍정과 부정 어느 한 쪽으로 확정될 수 없는 미묘한 긴장을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역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하겠다.

김혜순의 「서울의 밤」에는 “몇 개의 산맥을 타 넘어야/ 네게 이를 수 있니/ 불개미 한 마리가 플라스틱 장미 꽃잎을/ 한 잎 한 잎 타넘어 가고 있다/ 몇십 개의 계단을 올라야/ 잠든 너를 깨울 수 있니”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네게 이를 수 있니’와 ‘잠든 너를 깨울 수 있니’라는 표현도 일차적으로는 그만큼 네게 이르기가, 잠든 너를 깨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심층적으로는 대도시에서의 소외된 개인들을 일깨우고 싶은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의 경우에도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한 자락 없이 밝은/ 하늘”을 보고 싶은 열망 사이에서 의미의 긴장이 빚어진다.

IV. 맺음말

이상의 논의에서 본 연구는 현대시 텍스트에 나타난 설의적 표현의 양상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설의적 표현의 표현 의도와 효과를 심도 있게 살피고 수사적 지식의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설의적 표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들이 빚어내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도출함으로써 설의법의 정의와 몇몇의 예로 포괄적으로 설명되었던 설의적 표현 대한 과거의 교육 내용을 채신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사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설의적 표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수사학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일상어에서도 수사적인 효과를 의도하는 의문문이 빈번하게 쓰이기 때문에 설의적 표현에 대한 논의는 일상어와 문학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수사학의 교육적 의의를 부각시킬 수 있다. 즉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를 넘어서서 수사학이 의사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표현과 이해의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히는 데 있어 설의적 표현이 의미 있는 연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이 설의적 표현의 교육 내용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해와 표현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해도 설의적 표현이 어떤 쓰임을 갖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냐는 문제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연구의 결과가 보다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시의 의미는 오로지 그 시 텍스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이 된다는 점에서 모든 시는 새롭고 유일한 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한 편의 시에 쓰인 수사적 장치들은 그 시 속에서만 올바르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는 것은 더 큰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 텍스트를 무리하게 재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혹은 유형화를 한다면 무한히 많은 유형의 제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 또한 그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가 시적인 수사의 의미를 적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을 안내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일상어가 되었건 문학어가 되었건 필자/화자 자신의 표현 의도를 가장 그 의도에 가깝게 전달하는 언어적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연구가 서 있는 자리이며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 본 논문은 2006. 6. 20. 투고되었으며, 2006.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6. 7. 24.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미혜(2005), 「놀이로서의 '은유'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문학교육학』 제16집, 169~192, 한국문학교육학회.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김현 편(1985),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 김현자(2006),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서정'의 본질과 의미」, 한국시학회 제17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현대시에서 '서정'의 존재방식과 변모양상』, 7~13, 한국시학회.
- 김혜영(2000), 「문학적 체형 형성의 수사적 조건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7집, 309~3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노대규(1997), 『한국어의 감탄문』, 국학자료원.
- 박노철(2003), 「수사적 표현의 번역 방법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
- 박성창(2002), 『수사학과 현대 프랑스 문화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순(2001), 『한국어 문장의미론』, 박이정.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1998),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 염은열(1999), 「대상 인식과 내용 생성의 관계에 대한 표현교육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
- 오윤정(2002), 「한국 현대 리얼리즘 시의 두 양상 연구」, 서강대 박사.
- 윤여탁 외(2002),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태학사.
- 장영준(2000), 「한국어의 두 가지 의문문과 존재양화 해석」, 『한국어학』 제11집, 293~324, 한국어학회.
- 지주호(2004), 「수사적 의사소통」, 『독일어문학』 제24집, 407~431, 한국독일어문학회.
- 최동호(1999), 『시 읽기의 즐거움』,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미숙(1997), 「한국 모더니즘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
- G. 레이코프·M. 존슨 지음,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 J. 뒤부아 외 지음, 용경식 옮김(1989), 『일반 수사학』, 한길사.
- J. 켈러 지음, 임옥희·이은경 옮김(1999), 『문학이론』, 동문선.
- M. 함부르거 지음, 이승욱 옮김(1993), 『현대시의 변증법』, 지식산업사.
- Hodge, Robert(1990), *Literature as Discourse: Textual Strategies in English and History*, Polity Press.

<초록>

수사학적 지식의 교육 내용 연구

- 현대시 텍스트의 설의적 표현을 중심으로 -

김미혜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내면에서 정서적인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행동이나 사고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수사학은 그러한 표현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적 장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사학적 지식을 표현의 의도와 효과의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내용론을 채우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사적 표현의 의도와 효과가 응축되고 집약되어 드러나는 현대시 텍스트를 분석하였으며, 설의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타자지향성과 메시지를 드러내는 강도, 즉 양태의 정도를 기준으로 설의적 표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표현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설의적 표현은 (1) 행위의 변화를 요청하기, (2) 깨달음과 느낌을 공유하기, (3)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기, (4) 의미를 역설적으로 전달하기 등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2)는 의문문이 일종의 확인이나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3)은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의심의 상태에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로 하여금 시적인 수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언어적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국어교육, 수사학, 수사학적 지식, 설의적 표현, 표현 의도, 타자지향성, 양태.

<Abstract>

A Study on Contents of Rhetorical Knowledge Education

Kim, Mi-hye

Through communication, we not only transmit information or knowledge, but also try to bring about emotional responses from others'inside and trigger changes in their behavior and thinking. Rhetoric is a linguistic device to make such expressive effects possible. Thus, this study tries to fill up the theory of conten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freshly dealing with the existing rhetoric knowledge in the dimensions of intention and effects of expression.

This study analyzes modern poetry texts where intentions and effects of rhetoric expressions show up condensed and concentrated, and take the rhetoric interrogative expression as its object.

This study investigates types of rhetoric interrogative expression by dividing them into four types with other-orientedness and degrees of modality, i.e. strengths revealing messages and explains each type's expressive effects. We can classify rhetoric interrogative expressions into four types such as (1) requesting changes in behavior, (2) sharing realizations and feelings, (3) raising questions to oneself (4) transmitting meanings paradox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to plan certain educational contents that allow learners to correctly read meanings of poetic rhetoric, and make a linguistic structure that transmits one's expressive intentions effectively.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hetoric, rhetorical knowledge, rhetoric interrogative expression, expressing intent, other-orientedness, modality.